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문선원의 대행스님께 어우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출력일: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양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57호

서기 2002년 2월 20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조상들을 위하는 게 결국 자기를 위하는 것

천도의 의미는

문 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니다. 천도가 되었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생을 살면서 지은 모든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극락에 왕생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전생의 많은 문제들도 모두 해결이 되었다는 뜻인지요.

답 천도를 시킨다는 것은 현재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죄 석방이 되게끔 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무마시켜서 다시금 인도 환생하라고 천도를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부처님과 한자리를 하게 하기 위한, 은혜를 갚고 묵은 빚을 갚는 것이 재(齋)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사람이 죽으면 악행을 했든지 선행을 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서를 해결해 버리고, 여러분이 땅을 갈고 돌을 주워내고 골라 놓는다면 스님네들은 거기가 씨를 심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성껏 조상님들을 써 가지고 오면 그게 밭을 갈고 땅을 고르는 거나 같은 거죠. 재를 지내려고 정성껏 마련해 가지고 오는 것이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렇게 밭을 갈라 놓으면 스님들은 그 밭에다가 불씨를 심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환생을 해서 썩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손들이 얼마나 정성껏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으로 태어나느냐, 가난한 집으로 태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또 강통의 차원으로 태어나느냐? 선신으로 태어나느냐하는 문제가 다 마음에 담긴 겁니다.

예를 들어 어린애를 낳아 놓기만 하면 다 사회인이 됩니까? 기르고 가르쳐서 완전하게 키워야만 어른입니다. 그럴 때까지는 뒷바라지를 해야죠. 그러다 보면은 또 끝이 나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했던 것이 자식이 다시 부모가 돼서 끝이 나고, 자식들이 또 그렇게 해야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이물해서 효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천도재를 지냈는데 왜 또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윗대 조상들을 아버지가 천도를 시켰다면 천도된 분들은 그만되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세상에 다시 나왔다면 할지라도, 천도가 되어서 아등바등하는 시기가 있고, 위에 올라가 앉아서 '아! 저놈은 참 착하구나.' 하고 내려다보는 시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 부모만 부모입니까? 정말 부처님 자리와 한자리를 했다 할 때는 공을 들이고 촛불재를 하고, 백중을 지내고, 등을 달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조상들을 위하는 게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로 돌아가니까, 일체제불과 더불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자식 내 자식 따질 것이 없고, 네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높은 판사로 있다면, 내 자식들만 자식이라고 해서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냥 무죄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기가 있고, 아래서 허덕거리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천도재를 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도환생하게 해 주소서.' 하는 겁니다. 또 부모가 인도환생이 된 후에도 마음들을 알아서 정

말 한자리하도록 원하는 자식들이 그 은혜를 갚는 마음이 아주 끝간 데 없이 계속 돼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밥 한 번 먹었다고 어떻게 밭을 안 먹습니까?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염불을 한 번 외우면 우주간 법계 천지가 다 우러러 들고, 우러러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만 번을 염불을 해도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염불을 하고 중을 치면 이 세상이 다 울릴 것이고, 그 도리를 모르고 하면

도 항상 술자리가 부담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도 없고, 절친한 친구도 없습니다.

남들은 기본이 좋아지고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저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분위기를 위해서 한 잔만 마셔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괴로우니 어려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항상 술 자리는 힘이 듭니다. 생활 중에도 신경이 쓰이고 대인관계도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진정한 대장부의 길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 밖으로 보이는 것이 있지 않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남들엔겐 우스운 얘기겠지만 저에게 아주 큰 문제이기에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스님의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답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완벽하다면 이게 아니다. 이게 부족하다. 이게 안된다 해서 내 마음이 거기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안되는 것을 참 나라는 근본, 그 해맑은 마음에 탁 입입하는 그러한 완벽한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주인공에 의해서 다 조절이 되니까요.

진짜로 몸의 체질도 바꿀 수 있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런데 맡겨 놓고 도로 뺏어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될 텐데 진짜로

계발, 즉 말하자면 한마음 계발의 생활선으로서 나가는 길입니다.

불교에 대해 회의가...

문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신자셨는데 엄마가 너무 착하니 부처님이 하늘나라에서 쓰시려고 그렇게 데려가신 건지, 일찍 돌아가셨습니까. 저도 또한 불교신자인데 부처님에 대해 그리고 불교에 대해 회의가 듭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답 부모가 연세가 들면 인연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니 걱정이지. 자식들은 속 안 써서 드렸다고 하지만 부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일든 마다 안하고 고통이라는 소리 없이 행복하라고 기르시. 그게 인연의 인과 거든. 그러니 어머니를 위해서 마음을 잘 써서 관해 드려야 해.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생명력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해. 부모의 정자와 난자와 나의 생명력이 포함되니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태태가 되는 거지. 그렇듯 부모의 은덕으로 모습을 형성시켜주시니까, 육신이라는 집을 부모가 뒀어서 살기는 하지만 집 속에는 진짜 자기의 생명력이라는, 불성이라는 자기가 살고 있던 말이야. 그러니 일거수일투족 나의 근본을 믿어야 되는 거야. 현재 자(子)가

계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왜 아직까지 여자친구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쩌면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일을 알지 못하는 중생인데다, 당장 10여 년의 외로움과 연세 드시는 부모님이 저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는지요?

답 법우님이 그래도 수 없는 억척 동안 진화되어 나오면서, 선근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연이 없다면 모이질 않습니다. 손수건을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손수건이란 이름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써주니까 바로 손수건이라는 빛이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인연들이 한철 동안의 만남인데, 이 만남에 의해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느냐 구덩이로 들어가는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기에 인의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며, 착하게 마음을 쓰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악한 생각을 갖지 말고 항상 부드럽게, 더불어 같이 내면이나 외부 모두에 직결되고 가설되어 있는 한마음 속에 모든 것을 맡겨놓으세요. 외롭다는 생각도 참으라는 게 아니라 맡겨놓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물러서지 말고, 진실로 맡겨놓으면 자기라는 게 없어집니다.

인위적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 아마 나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묘한 도리를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직접 실험해 보세요. 실험을 해보지도 않고 나에게 맞는 인연이 오기만을 백 세 날을 기다린들 오겠습니까?

인연을 만나고 안 만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한 생애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수 억겁을 살아가면서 사람도 됐다, 짐승도 됐다가 이리저리 굴러 다니면서 근근덕신 살아갈 수단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깨우치고 본다면 구경선에 올라가서 평등공부에 이르러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이 그저 상관이 웃고 살수 있는 그런 이치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깨우치게 되면 아주 밝게 웃을 수 있고, 아주 진하게 울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돼요. 값싼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진한 자비를 말씀드리고 싶군요. 모든 사람이 욕정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진한 사랑은 자비예요. 더럽고 깨끗한 거를 떠난, 안 그런가요? 모르겠질랑 그렇게 생각하고 배워요.

인간 육신의 욕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살려고, 외지로 할 수 있는 동지를 만들려고 모두 야단이지 진짜 사랑은, 죽어가든 병신이 되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동체로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자비예요. 그래서 아주 진정한, 높고 낮음이 없는 정 때문에 살고 죽어야 한다 이 소리예요. 사랑보다도 정이 깊다면 자비가 돼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나간다면 영원토록 돌 아닌 도리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진실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들이 한 손이 돼서 들켜주는 진정한 자비가 생겼어요.

그리고 법우님이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차원이 높아진다면 법우님에게 맞는 인연도 차원이 높아져서 다가간다는 것을 알고 마음공부 열심히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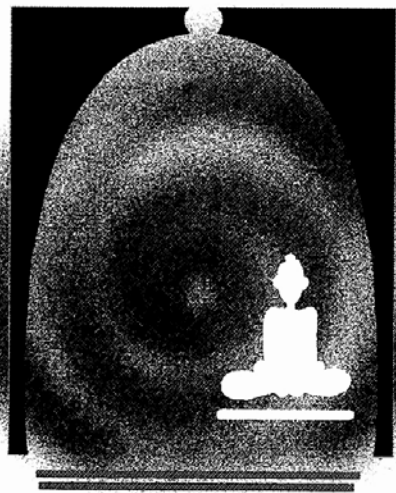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조건없는 사랑을 해야 조건없는 사랑이 다가와

놓을 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맡겨야 마음에서부터 두뇌로 올라와서 두뇌에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통신이 돼서 모든 생명체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개선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떠한 병 증세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골수로 올라가서 골수에서부터 사대로 통신이 되고, 사대에서 통신이 되면 다시 모여서 골수로 올라가서 호르몬을, 모든 것을 분배를 시킵니다. 그래야만이 적당한 체질로 바뀔 수도 있다 이 소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맡겼으면, 주인한테 맡기든 또는 머슴한테 맡기든 봐서 맡길만한 사람이면 딱 맡겨놓고 그것을 참견을

모습 없는 자기를 믿는 거야. 그게 에너지야. 부처님께서 별을 보고 깨달으셨다는 건 자기가 별성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불성이다 이거야. 자기 모습 아닌 자기, 진짜 자기를 찾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라는 거야.

그리고 불교에 회의가 든다고 했는데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고생 하며 최선을 다 해서 소임을 마치셨으니 좋은 곳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마음을 내야 하는데, 자식들은 하부라도 더 사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이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러니 정말 어머니이 좋

는 배우면서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고, 업을 면제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잘 생각하고 지극하게 수행해서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죽으면 더하고 말한도 없기 때문에, 새로 의복을 갈아입고 나오는 때라 교차로가 되거든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자기가 더 배우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하고 말함도 없죠. 모습이 없으니까 부딪침이 없고, 부딪침이 없으니까 상

방당 안에 있는 사람들만 듣게 되는 거죠. 중을 치지 않으면서 중을 치고, 중을 치면 중을 안 치는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불을 천 번을 하고 경을 만 번을 읽기보다도, 만 번을 염불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한생각을 잘하느니라 못하다 이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팔자 · 운명 탓하기 앞서 마음 계발해야

대가 없고, 상대가 없으니까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 있을 때 꼭 이 도리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중을 올리는 뜻은

문 절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대중을 올리고, 법당에서도 중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중을 올리는지 숨은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답 절에서 중을 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모든 생명들에게 '이 종소리를 듣고 귀가 뜨이고, 눈이 열려서 세상만사가 돌아가는 섭리를 알아라. 그래야 영원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 스님들은 목탁을 치고 염불을 하면서, 부처님의 상호를 우러러보면서, 또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장자 선장이 자기 머리를 치는 뜻으로 목탁을 치고, 종소리를 듣고 깨우치게 한다는 뜻으로 듣는 것이며, 심안이 밝아지게끔 부처님 상호를 보면서 염불을 올린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체질적으로 술 못 마셔

문 신문으로 스님의 말씀 항상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부드럽고 유연한 관계를 맺고 싶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류를 맡겨 놓고 '못 맡겨' 그러고는 도로 뺏어오고 그러니 그게 됩니까? 그와 똑같은 얘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주 적중히 생각하고 적중히 화살을 쏘십시오.

그러니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조절을 해서 생활의 자유인으로서 체질도 바꿀 수 있지만 내 마음도 바뀌어, 팔자나 운명 같은 것이 불을 자리가 없다. 언어도 불을 자리가 없다. 병이 불을 자리가 없고, 업보도 불을 자리가 없고, 죄가 있다는 것도 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진정 믿어야 합니다. 이런 아주 철두철미한 마음

은 곳에 태어나서 자유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극하게 관해 드려, 알았지요?

왜 이성운이 없는지...

문 저는 올해 만 29세 되는 남학생입니다. 가난하지 않은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 저 나름대로 어긋나지 않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쪽은 고등학교 때 눈을 땀는데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중국 쪽에서 많이 유행을 하였으며 심지어 히말라야 쪽에서 가사를 입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셨다고도 하시더군요.

꼭 그쪽에서는 아니겠지만, 이상하게 이 생애 전 이성 운이 별로 없었습니다. 스님

가짜본 인연을 보듯 고갈된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양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51 288쪽
값 6,000원
역시이문